



불굴의 정신력

나는 질병에 걸리거나 아플 수 없다는 믿음은 스스로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베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경기가 마비되고 학교도 휴업을 하고 병원이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만약 이대로 3개월이 지속된다면 20조원 이상의 피해와 60%의 소비 위축이 올 것이라고 하고, 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한다.

베르스도 하나의 바이러스일 뿐이다. 그러므로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 독감 정도로 생각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개인의 정결과 건강은 스스로가 챙겨야 한다. 정상적인 건강 상태의 백혈구라면 베르스 바이러스를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백혈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온을 올려주는 음식이나 운동, 족욕, 각방법 등을 이용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정신적인 안정이다. 백혈구는 스트레스에 약하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백혈구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항원에 밀리게 되고 결국 몸에 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하다. 또한 '나는 어떠한 병도 이겨낼 수 있다.'는 불굴의 정신력이 필요하다.

불굴의 정신력으로 죽을병을 이긴 사례는 아주 많다. 말기 암 판정을 받고 삶을 정리하러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3자녀를 둔 어머니가 "나는 자식들을 다 키우기 전에는 절대로 죽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다시 일터로 나가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일



사진설명:

비비안 멘델 스피는 범 공부를 하다 스노우보드를 타기 위해 공부를 포기하고 1996년 처음으로 FIS 스노우보드 월드컵에 참가한다. 그 후 운동을 하던 중 그녀의 발목에 통증을 느꼈고, 진단 결과 정강이뼈에 종양이 발견되었다. 수술로 무사히 종양을 제거하고 불굴의 의지로 2002 동계 올림픽에 참여하려 했지만 암이 재발돼 결국 그녀는 다리를 절단하기에 이른다. 다리 절단 4개월 후 그녀는 또다시 스노보드를 탈 수 있었다. 목다리와 함께 말이다. 그녀의 새로운 다리와 함께 출전한 네덜란드의 챔피언십 경기에서 그녀는 승리의 쾌거를 이룩한다.

2014 소치 패럴림픽에 네덜란드의 기수로 출전한 그녀는 스노보드 크로스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멘탈리티 재단'을 설립해 장애어린이들의 성취를 돕고 있는 공을 인정받아 '황연대 성취상' 또한 수상하였다.

을 하다가 죽었다.'는 각오로 다시 생산 현장으로 뛰어 들었다고 한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신이 이상하여 병원을 찾았더니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불굴의 정신력이 암을 이겨낸 것이다. 그 외에도 이와 비슷한 예는 고금(古今)을 막론하고 얼마든지 있다. 나폴레옹은 이집트의 전투에서 흑사병으로 누워 죽어가고 있는 수백 명의 병사들 사이를 돌아다녔다. 그는 그들을 하나하나 만지며 잠시 일으켜 세우기도 했다.

그것은 다른 병사들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행동이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무서운 흑사병이 그렇게 빨리 전염된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상상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괴테는 악성 열병이 만연하는 곳을 돌아다녔으나 그 자신은 그 병에 전염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가 의지를 발휘하며 다녔기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병이 쉽게 걸리지도 않지만 걸렸다 하더라도 쉽게 낫는다. 그것은 바로 '자기 암시의 힘'이

다. 자기암시란, 나는 질병에 걸리거나 아플 수 없다고 믿음으로써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질병에 관한 생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못하도록 단호히 결심할 때 혹은 전염병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의식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런 환자들 사이를 돌아다닐 때 병균을 짓밟고 일어서서 그것을 약화시켜 버리는 어떤 무엇이 잠재의식의 작용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존 포스터는 그의 증언에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불굴의 정신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불의의 사고조차도 피해 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경이로운 생각이 든다. 처음에는 험악해 보이는 운명도 불굴의 정신력을 지닌 사람에게는 고분고분해져서 말을 잘 듣게 된다.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정신의 소유자를 보면 이상하게도 그의 주위가 깨끗해지고 그에게 자유가 주어짐을 느낄 수 있다."

앞으로 베르스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나 괴질이 올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대로 "나는 결코 질병에 걸리거나 아플 수 없다. 나는 어떠한 병이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불굴의 의지가 있는 사람은 병원균이 침투할 수 없는 강력한 방어막이 형성되어 쉽게 병원균이 침투할 수가 없으며, 설령 침투한다고 해도 단시간에 병원균을 무력화시켜버리는 강력한 면역체계로 말미암아 어떠한 병마(病魔)도 이겨낼 수가 있다.*

외국인을 영어와 일어로 전도합시다

●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화와 죽음을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Most people think of man's ageing and death as a natural process.
多くの人は老化和死を当然の過程だと考えています.

● 만일 그렇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But, if we regard them as only a natural process, many problems will occur.
万一、それなら多くの問題が発生します.

● 노화와 죽음이 정말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이라면 그것에 대하여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If man's ageing and death were really natural and necessary, there would be no reason for man to fear them.
老化和死が本当に当然で必然的なものならばそれに対し恐れる理由がないだろう.

● 그러나 예외 없이 어느 누구도 늙어 죽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But, no one likes to grow old and die, without exception.
しかし例外なしでこの誰も老いて死ぬのが好きではありません.

● 만일 노화와 죽음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적인 메카니즘에 비례하여 진행되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은 같은 비례로 늙어서 같은 나이에 죽어야 한다.
If man's ageing and death proceed in proportion to the natural mechanism of time flow, all people should grow old at the same rate, and they should die at the same age.

万一、老化和死が時間の流れるのに伴った自然的なメカニズムに比例して進行されることならばすべての人は同じ比例で老いて同じ年に死ななければなりません.

● 하지만 젊은이가 늙어 보이고, 늙은이가 젊어 보이는 경우가 많다. 노화와 수명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것들이 당연한 현상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of young people looking old and old people looking young. The individual differences between growing old and the span of life lie in the evidence that man's senility and death is not a natural phenomenon.

だが、若者が老けて見えて、老人が若く見られる場合が多い。老化和寿命が個人により差があるということはそれが当然の現象でないという証です.

이승우 기자

숙답 속의 영생학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대한민국은 지금 베르스의 공포에 온 국민이 떨고 있다. 처리능력이 부족하여 검증 되지 않은 대체요법과 주의사항 등으로 우왕좌왕 하고 있다. 질병이 생기기 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지만, 예방은커녕 대처도 힘든 상황이다. 그럼 질병을 막는 진정한 예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이 사람의 근원을 알고 병이 걸리는 이유를 알고 나아가 죽는 원인까지 아는 것이다. 승리제단의 승리자 구세주께서는 이 모든 것에 답을 알려주셨다. 사람의 근원은 원래 '사람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마귀 육에 갇힌 하나님인 고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병에 걸리고 마침내는 죽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은 내 속에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으로 거듭나면 병마도 막고 결국에는 영생도 이룰 수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존심, 이기심, 욕

심, 고집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나'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나'라는 의식에서 벗어나 마귀를 이기고 양심대로 즉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애초부터 소를 잃지 않고 완벽한 외양간을 만드는 방법이다. 모든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빛(감로수, 삼신산의 불로초)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리는 이곳, 승리제단! 영생의 조류가 세차게 흐르는 이곳의 문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다.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던 고정관념을 버리고 승리제단의 참 진리에 동참하시어 영생의 대복을 받으라! 지금 이 시대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시간조차도 없을 정도로 절박한 때이다. 복이 있는 당신이며! 완벽한 병고(病痛)의 피란지가 되는 외양간을 준비할 수 있는 승리제단으로 오라.*

참고은 기자

우리말 바꾸기 헛갈리는 우리말 모음②

우리말 중에는 발음 때문에 헛갈리는 말들이 많다. 다음 예문에서 맞는 경우를 골라 보자.
예) 우리 팀은 (번번이, 번번히) 졌다. / 약속을 (번번이, 번번히) 어기다. / 농지 정리를 하여 논 전체를 (번번이, 번번히) 골랐다. / 시험에 (번번이, 번번히) 낙방하다. / 좋은 기회를 (번번이, 번번히) 놓치다.
정답은 세 번째 예문만 '번번히'가 맞고 나머지는 모두 '번번이'가 정답이다. '번번이'와 '번번히' 둘 다 부사이며 한국인에게 발음이 참 구별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번번히'가 더 자연스럽게 때문이다. '번번이'는 한자 '번번(番番)'에다가 '이'가 붙은 말로 '때 때마다'라는 뜻이며 '번번히'는 순수리말이자 고유어로서 '구김살이나 울퉁불퉁한 데가 없

이 편편하고 번듯하게'라는 뜻이다. '번번이'와 '번번히'는 알고 있어도 또 헛갈리는 우리말이기 때문에 숙지하여 두기 바란다. 다음의 두 번째 예문도 살펴보자. 사람의 언행이나 태도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포렷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말은? 1.두루뭉수리 2.두루뭉실 3.두리뭉실 4.두리뭉수리 정답은 1번이다. '두루뭉수리'는 '두루뭉술하다'와 같은 뜻의 명사이다. 예) 일을 푹 떨어지게 못하고 적당히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이 그의 약점이다. 매일 사용하는 우리말,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자.*

이승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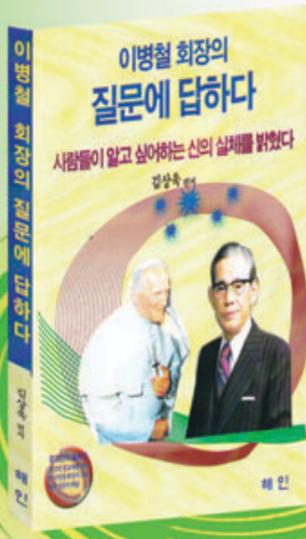
신의 실체를 알고 싶으십니까?

이병철 회장의 질문에 대하여

기독교, 천주교, 승리제단에서 답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신의 호흡을 느끼고 신의 생생한 모습과 신의 음성, 신의 목시를 당신은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 삶에 대한 본질적 물음에 대해 신의 혜안으로 풀어진 답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착한 심정이는 지옥에 갔을까요? 그러면, 세종대왕은? 이순신 장군은? 이에 대한 답이 이 책에 있습니다

종교인의 필독서



시중 서점결합 판매중

도서출판 해·인

하나님 (신)

● 하나님이 선하다면 재난과 전쟁,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을 왜 방치하는가?

종말 인류의 미래

● 지구에 종말이 올까? ●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부자와 천국

●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부자는 악인인가?

장생 건강한 삶

● 사람은 왜 늙고 병들어 죽어야만 하는가?